

## 국내와 외국 국가의 1인(여성) 가구에 대한 침입 범죄 예방 정책 비교

류 준 혁\*

### [국문 요약]

최근에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남성과 마찬가지로 1인 여성 가구 역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상 활동 이론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범죄로부터 방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에 범죄에 적합한 대상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인 (여성) 가구의 증가로 범죄의 3요소 중에서 적절한 범죄 대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동기화된 범죄자가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지키는 자가 부재(absence of guardian)라는 조건(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없는 상황)이 더해진다면,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국에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침입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다른 영미 국가들에서는 가정 침입 범죄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 범죄 예방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가 시행됐고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도 다양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1인 가구 범죄 예방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1인 가구, 여성, 일상 활동 이론, 과학적 증거, 상황적 범죄 예방

---

\*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Professor, Daegu Catholic University), E-mail: cincinnati@cu.ac.kr

목 차

- I. 서론
- II. 대한민국 가구 형태의 변화와 범죄학 이론
- III. 1인 가구와 범죄 문제
- IV. 외국의 1인(여성) 가구를 위한 범죄 예방 정책
- V. 결론 및 정책적 제안

## I. 서론

이론적으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매력적인 범죄 대상이 증가함으로써 가정 침입 관련 범죄를 급격하게 높일 수 있다. 특히 1인 여성 가구는 침입 범죄에 더욱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들에 대해 미래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1인 여성 가구와 관련하여 다음에 5가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1인 여성 가구의 증가가 의미하는 것이 범죄 이론(일상 활동 이론)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의 변화를 통해 범죄에 매력적인 대상이 어떤 정도 증가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와 관련하여 범죄 피해 가능성과 범죄 두려움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국내의 범죄 예방 노력을 살펴본다. 넷째, 다른 국가에서의 1인 가구를 위한 범죄 예방 노력과 정책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비교를 통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 II. 대한민국 가구 형태의 변화와 범죄학 이론

### 1. 이론 고찰

1979년 Lawrence Cohen과 Marcus Felson은 2차 대전 후 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실업률과 빈곤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자본주의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Capitalism)에 범죄율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점은 범죄의 원인을 전통적인 범죄학에서 그들의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적 변수(Economic variable)들과 범죄(Crime)들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신 그들은 1950년대와 60년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약탈 범죄(Direct Contact Predatory crime)의 증가는 사람들의 일상 활동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Cohen과 Felson은 범죄 발생을 위한 3가지 요소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최소한 범죄 성향과 그러한 성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범죄자(offender), 범죄자에게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sup>1)</sup>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물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guardian)등이다. 그들은 일상적인 활동(Routine activity) 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및 유능한 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최소 요소의 시간 및 공간 수렴에 영향을 미쳐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일상 활동 이론은 2차 대전 이후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멀어지는 활동의 증가는 동기화된 범죄자와 적절한 대상물이 지키는 자가 없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약탈 범죄(predatory crime)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특히 Cohen과 Felson(1979)은 동기화된 범죄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상태의 변화 없이 적절한 범죄 대상과 지키는 자의 부재 등의 변화만으로 많은 범죄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다시 범죄율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ohen과 Felson은 다양한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데이터<sup>3)</sup>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1인 가구와 관련한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Cohen과 Felson은 1인 가구의 경우 더 많은 범죄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일상 활동을 고려한다면 1인 가구의 구성원은 가정에 대한 의무감이 낮아 가정 내의 활동이 더 낮은 반면 가정 밖에서의 활동이 더 높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표적인 1인 가구인 젊은 사람 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Cohen and Felson, 1979: 596)<sup>4)</sup>. 그들의 연구 표 3(597p)에서는 주거침입(burglary)과 강도(robbery)는 모든 연령에서 1인 가구가 2명 이상의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범죄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다른 데이터를 사용한 범죄통계(가정 침입, 가정 침입 절도, 차량 절도)에서도 같은

---

1) 범죄 대상 적합성(target suitability)은 범죄 대상물의 가치(value)(범죄자에 대한 개인 또는 재산 표적의 물질적 또는 상징적 바람직함), 물리적 가시성(visibility), 접근(access) 및 범죄자에 의한 불법적 대우에 대한 표적의 관성(inertia)(무게, 크기 그리고 불법적인 제거를 억제하는 자산표시 부착 또는 자물쇠, 폭력 범죄의 경우 무기가 있든 없든 공격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의 물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2) 예를 들면 집에서 멀어지는 일상 활동의 증가는 범죄자로부터 지키는 능력(guardianship ability)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일상 활동의 변화는 사람 또는 사물인 범죄 대상물의 위치, 가시성, 접근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거시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1960~1970년 사이에 미국 시민들의 일상 활동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결혼한 여성 취업률의 증가, 집안에 아무도 없는 시간의 증가, 야외 활동의 증가, 휴가와 해외여행의 증가 등의 집 밖에서의 활동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15~24세 인구의 31% 증가하였다. 이들 모두 외부 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4) 실제 데이터 역시 나이가 많아질수록, 덜 활동적일수록, 결혼한 사람일수록 다양한 약탈적 범죄에 대한 피해가 낮았다. 이는 집에서 멀어지는 일상 활동이 높을수록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를 제시하였다. 1인 가정에 비해 가정의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범죄 피해(가정 침입, 가정 침입 절도, 차량 절도) 비율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6명이 포함된 가정의 경우 1인 가정에 비해 범죄 피해 가능성이 3분의 1).

## 2. 대한민국 1인 가구 현황

최근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과 더불어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716만 6,000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는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래 그림을 보면 2017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8.6%(561만 9,000가구)였지만, 2019년 30.2%(614만 8,000가구)를 기록하며 30%를 돌파했다. 이어 2020년에는 664만 3,000가구, 전체의 31.7%를 기록했다<sup>5)</sup>. 2022년 716만 6,000가구는 전체 가구 중 33.4%가 1인 가구이며 우리나라에서 세 가구 중 한 곳은 1인 가구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성 1인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는 (2000) 127만9천 → (2010) 221만 8천 → (2020) 333만 9천 → (2021) 358만 2천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인 가구 중에서 1인 여성 가구의 비율은 남녀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아래 <표 1>은 2015년부터 2021년 성별 1인 가구 수와 비율이다. 1인 가구의 남녀 수와 비율이 거의 같다.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에서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성별에 따른 1인 가수 수(비율)

	1인 가구	남성	여성
2015년	5,203,440	2,592,963	2,610,477(50.16%)
2016년	5,397,615	2,675,861	2,721,754(50.42%)
2017년	5,618,677	2,791,849	2,826,828(50.31%)
2018년	5,848,594	2,906,320	2,942,274(50.30%)
2019년	6,147,516	3,053,733	3,093,783(50.32%)
2020년	6,643,354	3,304,398	3,338,956(50.26%)
2021년	7,165,788	3,583,770	3,582,018(49.987%)

자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 → (2010년) 23.9% → (2020년) 31.7% → (2021년) 33.4%

아래 <표 2>는 2021년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수다. 전체 성별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각 연령별 성별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9세 이하부터 5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60세 이상부터는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성 1인 가구 안에서 연령별로 비율을 29세 이하 여성의 비율과 고령의 여성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수(비율)

연령	전체 1인 가구	비율	남성 1인 가구	비율	여성 1인 가구	비율
29세 이하	1,418	19.8	724	20.2	694	19.4
30~39세	1,226	17.1	783	21.8	443	12.4
40~49세	950	13.3	604	16.8	347	9.7
50~59세	1,101	15.4	637	17.8	464	13.0
60~69세	1,176	16.4	521	14.5	655	18.3
70세이상	1,295	18.1	316	8.8	979	27.3
전체	7,166	100.0	3,584	100.0	3,582	100.0

자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앞서 제기한 일상 활동 이론에 따르면, 1인 가정의 경우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 범죄 발생의 3가지 요소 중에서 지키는 자의 부재(absence of guardian)라는 조건에 적합하며, 많은 구성원을 가진 가구에 비해 범죄에 대응할 방어 능력이 부족한 적합한 대상(suitability of target)이 될 수 있다<sup>6)</sup>.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범죄로부터 방어 능력이 더욱 떨어지게 되기에 범죄에 적합한 대상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범죄의 3요소 중에서 적절한 범죄 대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기화된 범죄자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지키는 자가 부재(absence of guardian)라는 조건(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없는 상황)이 더해진다면, 1인(여성) 가구에 대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6) 적절한 대상(suitability of target)에 대해 Cohen과 Felson(1979)는 VIVA라는 하위 개념을 제시하였다. Value, Inertia, Visibility, Availability.

### Ⅲ. 1인 가구와 범죄 문제

그렇다면 실제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범죄 문제가 심각한지 나아가서는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범죄가 실제로 심각한 수준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표 3>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 여성의 수이다. 1인 가구 여성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거침입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점은 주거침입 범죄에 증가하는데 비해 검거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를 보면 검거율이 2016년 75.7%에서 2020년 72.6%로 하락한 상황이다.

<표 3> 2016-2020년 주거침입 범죄와 여성 피해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발생 건수	여성 피해	발생 건수	여성 피해	발생 건수	여성 피해	발생 건수	여성 피해	발생 건수	여성 피해	발생 건수	여성 피해
11,631	6,034	11,823	6,313	13,512	7,047	16,994	9,189	18,210	9,751	72,170	38,334

자료 출처: 경찰청 - [최기상 의원 제출 자료]

<표 4> 2016-2020년 주거침입 범죄 검거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11,631	11,823	13,512	16,994	18,210
검거건수	8,806	8,903	10,141	12,287	13,227
검거율(%)	75.7%	75.3%	75.1%	72.3%	72.6%

자료 출처: 경찰청 - [최기상 의원 제출 자료]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한국에서 두 가지 연구 질문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1인 (여성)가구의 범죄 피해율이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실제로 더 높은가이다. 둘째, 1인 여성 가구의 구성원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이다. 아래 <표 5>는 1인 가구의 범죄 관련 연구들이다<sup>7)</sup>. 모든 연구에서 완전히 일치되는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2010년 초반 연구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범죄 피해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범죄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범죄 두려움이 높다는

7) 검색엔진 - EBSCO (키워드- 제목 “1인 가구”, “범죄” 포함) 연구와 주제와 관련성 깊은 연구 들을 포함하였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에서 1인 여성 가구와 1인 남성 가구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1인 가구와 범죄 관련 국내 연구 분석 요약

연구	데이터(분석 방법)	결과
박성훈(2011)	2008년 범죄 피해 데이터 (회귀분석)	• 1인 가구 범죄 피해율 더 낮음(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
김지선, 주익현(2015)	2010년, 2012년 범죄 피해 자료	• 1인 가구 범죄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작음
강지현 (2017)	2012년, 2014년 전국 범죄 피해 조사 (회귀분석)	•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다른 유형의 가구(원)보다 높은 피해율
장진희 (2018)	2014-2016 서울 자료(패널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수의 1.0% 증가는 5대 범죄의 0.81%의 증가를 일으키며 여성 인구비의 1% 증가는 0.06% 증가</li> <li>• CCTV 설치 수가 1% 증가하면 0.08% 감소, 치안 시설비 1% 증가는 0.03% 감소 효과</li> <li>•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1% 증가는 0.007% 감소</li> </ul>
강지현 (2019)	2012년, 2014년 전국 범죄 피해 조사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은 범죄 두려움 수준 나타냄</li> <li>• 노인 1인 가구보다 청년 1인 가구가 높은 두려움 보임</li> </ul>
선한이, 조윤희 (2020)	2018년 65세 이상 노인 데이터 3,034	• 노인 1인 가구의 약 2.6%에서 범죄 피해 경험(재산 범죄, 폭력, 강력 범죄, 성범죄, 물건 판매 사기, 전화 금융사기 피해)
김원중 (2020)	2015~2017년 지역 패널자료(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5대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247건까지 증가</li> <li>• 5대 범죄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범죄는 성범죄와 절도 범죄</li> </ul>
최형근 외 (2021)	2010~2018년 범죄 피해 데이터(트렌드 연구,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범죄 두려움이 다인 가구 범죄 두려움 보다 낮음</li> <li>• 1인 가구 여성의 범죄 두려움이 높음</li> </ul>

조제성. 이상훈(2021)	2018년 범죄 피해 데이터(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여성은 Target hardening(대상물 강화-방범창, 경보기), 경찰 신뢰, 공동체 의식은 범죄 두려움에 영향 없음</li> <li>• 거주지 환경과 자율 방법 참여는 1인 가구 여성의 범죄 두려움 감소에 영향</li> </ul>
최형근 외 (2022)	2018년 범죄 피해 데이터 (성향 점수 매칭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여부(독립변수) 자체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은 없음</li> </ul>

현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범죄 피해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는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18개 구에서 안심 홈 세트(현관 보조키,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방범창) 지원과 안심 점포 무선 지원 벨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sup>8)</sup> 대구의 경우에 중구 4개 동에서는 2021년부터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범죄 예방 안심 4종 세트(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 IV. 외국의 1인(여성) 가구를 위한 범죄 예방 정책

##### 1. 최근 범죄 예방 정책의 방향 - 증거 중심 범죄 예방 정책

범죄 예방에 관한 최근의 연구 방향의 특징은 증거 중심 범죄 예방(Evidenced based crime preven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회 과학 분야이지만 범죄 예방 분야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예산을 효과적인 범죄 예방 정책에 투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진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범죄학(예방)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고 이 연구들 사이에서 어떤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범죄에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범죄자 교화(Criminal Rehabilitation)의 효과에 대해서 Robert Martinson의 “Nothing work” 주장은 범죄자 교화 정책에서 처벌 중심 정책으로 변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sup>9)</sup> 이와 비슷하게 경찰의 범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범죄학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은 범죄에 대해 경찰의 역할에 대한

8) 5개 구에서는 안심 홈 세트 지원과 무선 지원 벨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9) Francis T. Cullen(2013). Rehabilitation: Beyond and Nothing Works. Crime and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다양한 의문을 야기하기도 하였다.<sup>10)</sup>

어떤 제도, 정책, 프로그램 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새로운 연구 방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회의적 시각에 대한 돌파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가지 방식의 연구 혁신이 경찰 그리고 범죄자 교화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경찰 효과성 연구에서 Lawrence Sherman을 비롯한 미국 메릴랜드 대학(Maryland University)은 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효과성 연구<sup>11)</sup>에서 정책의 인과성(효과성) 분석에서 내적 타당성이 높은 연구 형태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의 정책 분석을 통해 증거 중심의 범죄예방 정책 연구를 시도하였다<sup>12)</sup>. 메타 분석<sup>13)</sup> 연구 역시 범죄자 교화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바꾼 중요한 연구 방식이다. 이러한 연구 혁신은 현재 범죄학, 범죄 예방 정책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연구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 2. 범죄 예방 이론

다양한 범죄 예방 정책이 있다. 어떻게 많은 범죄 예방정책을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 하지만 1995년 Tonry와 Farrington은 “Building a Safe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에서 4가지 범죄 예방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법집행(Law enforcement)을 통한 범죄 예방, 발달적(Developmental) 범죄 예방, 지역사회(community) 범죄 예방, 상황적(situational) 범죄 예방.

발달 범죄 예방은 발달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위험 요소의 감소와 보호 요소의 강화를 통한 조기 개입에 중점을 둔다(France and Homel, 2007; Farrington and Welsh, 2007). 발달 범

10) 예를 들어, 일반화된 예방 순찰과 시민 서비스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주요 경찰 범죄 예방 접근방식을 평가한 결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범죄를 줄이는 데 거의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elling, Pate, Dieckman, and Brown, 1974; Spelman 및 Brown, 1984). 실제로 1990년대까지 David Bayley(1994: 3)는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이것은 현대 생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밀이라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은 알고 경찰은 알지만, 대중은 모른다. 경찰은 자신을 범죄에 대한 사회의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신화(Myth)”라고 주장하였다.

11)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8, Washington, DC. 그들의 연구 방식은 Donald T. Campbell과 Julian C. Stanley(1963) “Experimental and Quasi 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에 기반을 두고 있다.

12) 이후에도 2002년 Evidenced Based crime prevention을 연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내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폭넓은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구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13) 메타 분석은 광범위한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연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10개의 연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7개 연구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학적인 효과 분석을 위해 effect size를 도출하고 각 연구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가중치 평가를 포함한 과학적 분석 방식이다. 최근에는 실험 연구 방식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과 결합하여 증거 중심의 연구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Welsh and Farrington, 2007:8-10)

죄 예방은 개인, 가족, 학교 또는 지역사회가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를 일으키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또는 문제가 심화하기 전에, 발달과정에서 초기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손상이 복구하기 너무 어려워지기 전에 개입하는 접근방식이다. 물론 두 가지 과제는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발달단계에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한 다음 식별된 조건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유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달적 범죄 예방 및 조기 개입의 성공에 대한 과학적 증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Tonry와 Farrington (1995: 21)에 따르면 "지역사회 범죄예방(community crime prevention)은 주거지역 사회에서 범죄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접근방식은 주거지역 사회와 이웃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조건을 변경하려는 범죄 예방 접근방식이다. 범죄 예방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부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적 범죄학파인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해체 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의 2가지 범죄 예방 접근은 범죄성(Criminality)에 대한 접근인 데 반해 상황적 범죄 예방은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다. 대표적인 상황적 범죄 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학자 Ronald Clarke(1997)에 따르면 상황적 범죄 예방은 (1) 매우 특정한 형태의 범죄를 겨냥하고, (2)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관리, 설계 또는 조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회를 감소시키려 하며, (3) 범죄의 노력과 위협을 증가시키고 광범위한 범죄자가 인식하는 보상에 대한 감소를 통해 범죄 예방을 실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의 4가지 모형 중에서 경찰 활동을 통한 범죄 예방과 상황적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1인 여성 가구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서 1인 (여성)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과 1인 여성 가구 보호

다른 국가에서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전략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1인 여성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범죄에 집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1인 여성 가구에서 어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범죄 예방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황적 범죄 예방 전략은 광범위한 범죄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특정한 형태의 범죄에 집중한다. 이전에 형법적 접근에서 절도, 강도, 성폭행과 같은 구분에서 각각의 범죄에 대한 전략은 맞춤형 접근을 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절도에도 수많은 종류의 절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절도의 하위 형태인 상점 절도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동기와 범행방식을 가지는 다양성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범죄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다양한 범죄 중에

서 주거침입 절도(burglary)에 집중한다<sup>14)</sup>. 만약 1인 여성 가구에 주거침입 방지를 위한 범죄 예방 연구가 없다면,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침입 예방 활동을 제시한다. 만약 1인 가구에 관한 범죄 예방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주거침입,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침입,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활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증거 중심의 활동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연구들이 없다면 단일 연구 중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4년 Deborah Lamn Weisel은 1인 가구에 대한 침입 절도(Burglary of Single Family Houses)에 대해 문제지향 경찰 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을 통한 효과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제시하였다.<sup>15)</sup>. 그녀는 19가지 범죄 예방 전략을 제시하였다. 12가지가 상황적 범죄 예방 전략, 피해자 보호를 위한 1가지, 범죄자를 억제하기 위한 방식 4가지, 제한된 효과를 가지는 대응 방법 2가지를 제시하였다.

**<표 6> 1인 가구에 대한 침입 절도 예방대응**

번호	대응방식	범죄예방 방식 (How it works .....) - Mechanism
<b>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b>		
1	침입절도 경보 설치(Installing Burglary Alarms)	침입을 시도하려는 범죄를 적발할 위험을 높일수 있다. 경보가 시끄럽다면 침입 시도하는 사람의 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경보가 조용하다면(범죄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범죄자를 체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CCTV 설치	범죄자 적발 가능성과 체포 가능성을 높임
3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	자물쇠, 창문, 문과 같은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실행하기 힘들게 하고 가구의 범죄 취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 피해 예방 가능
4	자산에 표시하기(Marking Property)	훔친 물건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며, 자산에 표시함으로써 훔친 물건의 이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5	현재 거주자 존재 표시 (occupancy indicator)	침입 의도를 가진자에게 현재 집에 사람이 있는듯한 표시를 준다. 예를 들면, 내부조명, 외부 조명을 켜 둔다거나, 시간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조명을 설치

14) 만약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의미한다면 범죄자들의 대상물 물색방식이 침입 절도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두 범죄다 침입이 우선된 후에 다음의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침입을 예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15) Problem oriented guides for police problem specific guides series guide No. 18. - Burglary of Single Family House. Deborah Lamn Weisel(2004). U.S. Department of Justice. <https://popcenter.asu.edu/content/burglary-single-family-houses-0>

		하거나, 커튼으로 집안을 가리고 라디오를 켜놓는다.
6	안전한 피난처 조성(creating safe havens)	안전요원, 경보기, CCTV와 같은 장치로 보호받는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주택 침입을 시도하는 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7	가시성 증가(improving visibility)	침입 절도에 취약한 집의 구조적 특징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집에 대한 가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범죄자를 인지하기 쉽도록 할 수 있다. 집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치우거나, 나무와 관목 정리, 담장 개조, 조명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방식
8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주민들끼리 서로의 집을 감시해(지켜)주고, 수상한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적발 가능성을 높인다.
9	건축 법규 개정(Building Code modifying)	안전한 건축물을 위한 법규를 개정한다.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데드볼트(Dead Bolt), 침입 저항 창문의 설치, 창고의 문을 잠긴 채 관리되어야 하는 등의 새로운 법규의 제정은 범죄자들이 침입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
10	지역사회 디자인 변경(modifying community design)	새로운 지역사회를 개발할 때, 범죄행위가 쉽게 적발되도록 하고 범죄를 하기 힘들게 디자인한다.
11	차량을 이용한 접근 감소(reducing traffic access)	도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막다른 도로 설계는 범죄자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범죄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
12	집에 대한 접근 제한 또는 감소(Reducing house access)	집으로 통하는 좁은 골목에 문을 설치(alley gate), 가시성을 높이기 힘든 부분에 대해 담장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어서 집에 접근하기 힘들게 함으로써 범죄를 하기 힘들게 만든다

**피해자를 위한 대응(Victim Oriented Responses)**

13	반복적인 피해자 보호 (Repeat victim protection)	주거침입 절도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본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는 전제 범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입 부분에 대한 보수와 안전 강화</li> <li>• 대상물 강화</li> <li>•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 시행</li> <li>• 현재 거주자 표시 설치</li> <li>• 경찰 순찰 강화</li> <li>• 경보기 설치</li> <li>• 집밖에 라이트 설치</li> <li>• 자산에 대해 표시를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시를 집밖에 표시함</li> </ul>
----	----------------------------------------	--------------------------------------------------------------------------------------------------------------------------------------------------------------------------------------------------------------------------------------------------------------------------------------------------------------------------------

**범죄자에 대한 대응(Offender Oriented Responses)**

14	반복적인 범죄자의 활동	침입 절도 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높다. 이들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함
----	--------------	------------------------------------------

	감시와 처벌 강화	로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15	훔친 물건에 대한 처분을 어렵게 함	전당포, 벼룩시장,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것 등에 대한 관리
16	약물 중독 치료	약물 중독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약물 의존성이 있을 때 범죄자를 치료함으로써 범죄를 줄일 수 있다.
17	경찰의 대응력 강화와 범죄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입 절도에 대한 경찰 순찰 강화</li> <li>• 범죄 패턴 분석</li> <li>• 물리적 증거 수집 능력 강화</li> <li>• 용의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li> <li>• 감시활동 강화</li> </ul>
<b>제한된 효과를 가지는 대응</b>		
18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처벌 강화는 제한된 효과를 가짐. 처벌 가능성을 같이 높이는 것이 필요함
19	범죄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범죄 예방 조언 제공

영국 경찰 대학(College of policing)에서는 가정 침입(Domestic Burglary) 범죄를 포함한 지역사회 범죄(Neighborhood Crime)에 대한 효과적인 상황적 범죄 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sup>16)</sup>.

16) <https://assets.college.police.uk/s3fs-public/2022-01/Neighbourhood-crime-situational-crime-prevention-initiatives.pdf>.

17) Tseloni et al. (2017) Domestic burglary drop and the security hypothesis. *Crime Science*, 6:3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Tseloni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2011년 까지의 영국과 웨일즈 범죄 설문 데이터를 이용한 Quasi Experiment 연구에서 물리적 안전 강화가 1990년대 영국에서의 가정 침입 절도(burglary) 범죄예방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주장한 물리적 안전 강화는 WIDE (Window and Door Locks + Indoor and External Lights)로 현재 물리적 안전강화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진다.

18) Aiden Sidebottom, Lisa Tompson, Amy Thornton, Karen Bullock, Nick Tilley, Kate Bowers & Shane D. Johnson. (2017). Gating Alleys to Reduce Crime: a meta analysis and realist synthesis. *Justice Quarterly*, 35(1):55-86.

19) Trevor Bennett, Katy Holloway, David Farrington, (2008). The effectiveness of neighborhood watch, *Campbell Systematic Reviews*, 18.

20) Grove, L. (2011). Preventing repeat domestic burglary: a meta<sub>7</sub> evaluation of studies from Australia,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Victims and Offenders*, 6(4). 호주(6건의 연구), 미국(3건의 연구) 및 영국(13건의 연구)에서 22건의 반복적인 국내 절도 예방 평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21) Welsh, B. C and Farrington, D.P (2008) Effect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on crime: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4(1):1-51.

22) Laycock G. (1985). 'Property marking: a deterrent to domestic burglary?'. Home Office Crime Prevention Unit Paper 3. London: Home Office.

23) Clarke RV. (2005). Closing streets and alleys to reduce crime: should you go down this road? Response guide

<표 7> 가정 침입절도(Domestic burglary)에 대한 효과적인 상황적 범죄예방 대응

<p><b>Physical security 물리적 안전 강화</b><sup>17)</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증거 있음</li> <li>W - Window Lock (창문 잠금)</li> <li>I - Interior Lights on Timer</li> <li>D - Double door locks or deadbolts</li> <li>E - Exterior Lights on sensor</li> </ul> <p>의 4가지 조합은 물리적 안전 강화 없는 곳보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작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언론에 공개된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SBD(Secure by Design) 표준에 따라 방범하면 침입 절도 피해 가능성이 53% 감소</li> </ul>
<p><b>Alley Gat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에 잠글 수 있는 문 설치의 잠재적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 거주자만이 열쇠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며 비거주자의 접근을 통제한다. 영국의 오래된 거주지역에서 효과를 가지는 범죄 예방 방식으로 지역사회 범죄에 효과적임<sup>18)</sup>.</li> </ul>
<p><b>지역 감시 (neighborhood Watch Schemes - NW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증거</li> <li>● 가정 감시(home watch), 블록 위치 및 커뮤니티 감시로도 불림</li> <li>● NWS의 목적은 지역 시민이 안전을 증진하거나 범죄 예방을 돕는 활동에 참여</li> <li>● NWS의 효과를 조사한 체계적인 검토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00건의 강도 사건에 대해 NWS를 통해 평균 26건의 범죄가 예방(Bennett et al., 2008)<sup>19)</sup></li> <li>- 범죄자는 지역 주민들의 감시와 신고 활동에 대한 두려움에 범죄가 억제될 수 있음</li> <li>- 지역사회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효과성을 높일수록 범죄 감소 효과 높음</li> <li>- 대중과 경찰 사이에 정보 교류(flow of intelligence)를 증가시킬수록 범죄자를 인지할 가능성 상승</li> </ul>
<p><b>반복적 그리고 반복적 피해자 근처에 대한 예방 활동 Interventions for repeat and near-repeat victims (cocooning)</b><sup>20)</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증거 있음</li> <li>● 침입 절도 발생 후에 6주 안에 400m 안에 비슷한 가정에 대한 침입 절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이 중요함 (이들 지역 그리고 건축물의 방범 상태에 대해 범죄자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발생 가능성 높음 - optimal forager theory)</li> <li>● Cocooning 활동 - 반복적 피해자와 피해자 근처 가정에 대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li> <li>●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 활동과 자산에 표시하기 활동과 같이할 때 더 효과적임</li> </ul>

no. 2 [internet]. ASU Center for Problem-Oriented Policing.

24) Armitage R, Monchuk L and Rogerson M. (2011). It looks good, but what is it like to live there? Exploring the impact of innovative housing design on crime.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17: 29-54.

<p>거리 가로등(Street light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의 개선이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b>강력한 증거</b></li> <li>• 13개 연구(미국에서 8개, 영국에서 5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로등이 개선된 지역에서 모든 범죄 유형이 통제 지역에 비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 연구에서는 5개 연구 중 4개에서 총 범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영국 연구에서 합산 추정 평균 감소는 38%<sup>21)</sup></li> </ul>
<p>자산에 표시하기(Marking Proper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간 정도의 효과 있음</b></li> <li>• 재산 표시는 재산 항목에 집 번호와 우편 번호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이러한 항목을 도난당하였을 때 해당 집주인에게 더 쉽게 반환할 수 있음. 속성 표시는 UV 펜, 보안 태그,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장치 또는 마이크로도트 솔루션(고유하게 코딩된 디지털 서명 포함)을 사용하여 수행</li> <li>• 재산 표시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두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범죄 감소 효과<sup>22)</sup>. 추가 연구에서는 10개의 침입 절도 빈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산 표시를 테스트했으며, 하나의 표시 기술만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li> </ul>
<p>거리와 보행로 설계(Road and Pathway desig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간 정도 효과</b></li> <li>• 접근이 쉬운 거리에서 범죄가 더 자주 발생.</li> <li>• 범죄자는 관찰 가능성이 더 크고 재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입구나 출구 경로가 줄어들어 들키지 않고 탈출하기가 더 어려운 막다른 골목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음</li> <li>• Ronald Clarke(2005)는 단독 예방 대응 또는 다른 대응과 합동으로 시행된 도로 폐쇄 대응 연구 11개에서 범죄예방 효과 확인함<sup>23)</sup></li> <li>• 실제 막다른 골목(연결된 경로가 없는 경우)과 비교할 때 도로를 통한 범죄가 93% 더 많은 반면, 새는 막다른 골목(연결된 경로가 있는 경우)은 110%를 경험<sup>24)</sup></li> </ul>

앞선 보고서는 단순하게 효과적인 대응만을 제시한 데 비해 영국 경찰 대학(College of policing) 홈페이지에서 범죄 감소 공구키트(Crime reduction tool kits)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 감소 공구키트는 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는 최선의 연구 증거를 EMMIE 평가를 통해 제시한다. EMMIE는 Effect(효과 - impact on crime), Mechanism(작동방식 - how to work), Moderator(조정 - where it work - 어떤 환경에서 최적인가?), Implementation(실행 - How to do it - 실행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Economy(what it costs - 경제성)이라는 5가지 평가방식을 포함한다. EMMIE 평가를 통해 침입 절도(burglary)에 대한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5) CCTV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의 Mechanism이 가능. 다음의 방식으로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① 범죄자들이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든다; ②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을 높인다; ③ 반대중의 공공장소에 대한 사용을 높이고, 대중의 감시를 높임으로써 범죄자들이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지하도록 만든다; ④ 추가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하도록 일반 시민들의 인지 노력을 증가시킨다; ⑤ 범죄 사건에 대한 안전요원의 효과

<표 8> 침입절도(burglary)에 대한 범죄예방 전략 EMMIE 평가

범죄예방 전략	범죄예방 효과	E	M	M	I	E
<i>Alley gate</i>	전체적 감소	●●●●	●●●	●●●	●●●	보통
<i>CCTV</i>	전체적 감소	●●●●	●●● <sup>25)</sup>	●●●	●●●	No info
<i>Hot spot police</i>	전체적 감소	●●●●	●●	●●	●	No info
<i>Neighborhood watch</i>	전체적 감소	●●●	●	●●	●	No info
<i>Street Lighting</i>	전체적 감소	●●●●	●●●	●●	No info	No info
<i>Victim offender Mediation</i> (피해자 가해자 중재)	전체적 감소, 일부 연구 증가	●●●	●	●●	●	No info
<i>Youth Curfews</i> (청소년 통금)	감소 또는 증가 연구	●●●●	●	●	●	●

마지막으로 2021년 European Crime Prevention Network(EUCPN)은 가정 침입 절도(Domestic Burglary)에서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였다<sup>26)</sup>.

<표 9> 가정 침입 절도(Domestic burglary)에 대한 EUCPN 대응

방법	Mechanism or other info
<b>범죄 예방에 강한 효과</b>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IDE (Window Locks, Internal Lights, Door Locks and external Light)의 조합을 최상의 범죄 예방 전략으로 제시</li> <li>특히 internal lighting on timer - 누군가 있는 신호를 절도범에게 줄수 있음</li> <li>External lighting on a timer - 침입자에게 적발의 위험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 가짐</li> <li>CCTV는 높은 비용과 실제 침입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체포, 적발 가능성은 높이지만) 더 싸고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WIDE에 집중을 권고함</li> </ul>
지역사회 감시(Neighborhood wat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주민들의 감시 조직 구성하고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줌</li> <li>지역 주민들의 감시 증가는 범죄자 적발 가능성 높임</li> <li>지역 주민 스스로 또는 지역 경찰이 이러한 조직 구성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li> </ul>

적인 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범죄 기회를 줄일 수 있다.

26) EUCPN (2021), What works to prevention domestic burglaries? Brussels: EUCPN



국내와 외국 국가의 1인(여성) 가구에 대한 침입 범죄 예방 정책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li> </ul>
반복적인 피해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인 범죄 피해 가구와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필요</li> <li>• 범죄 예방 노력의 즉각적인 시행</li> <li>- 경찰 순찰과 감시활동 증가</li> <li>- 범죄 예방 정보제공 노력(집을 비울 때 창문과 문을 제대로 잠그기, 출입구 보안 강화, 자물쇠와 라이트 설치 및 향상)</li> <li>- 지역사회 감시 노력(주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상호 도움)</li> </ul>
Alley G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된 지역에 침입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노력 증가</li> <li>• 공공장소를 사적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범죄자들을 인지할 가능성을 높임</li> <li>• 자연적 감시성과 변명 감소를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음</li> </ul>
거리 ligh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음 - 야간</li> <li>• 지역사회 자부심과 비공식적 통제 상승 - 사람들의 공간 사용 증가, 자연적 감시 증가 - 주야간 모두 적용</li> </ul>
<b>범죄 예방에 중간 효과</b>	
반복적인 범죄자에 대한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의 범죄자들이 높은 비율의 범죄</li> <li>•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제재</li> </ul>
주민들에 다양한 범죄 예방 방법 알림(Local publi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침</li> <li>• 예방 활동을 실행할 때 Moderator가 중요함 (context)</li> </ul>
자산 표시 (Marking Prop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물 관리를 통해 범죄자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함</li> </ul>
<b>제한된 효과 또는 효과 없음</b>	
경보기(alarm) - Caps Telec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험 감소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으므로 실제로 역효과 가능성 있음</li> <li>•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일부 강도가 탐지를 피하고 체포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보를 피하거나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음</li> <li>• 강도는 또한 잘못된 경보 비율이 높으므로 경찰과 경보 회사가 순찰대를 보내 경보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강도가 일을 마치고 떠날 시간을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li> <li>• 다른 가능한 설명은 강도가 경보기의 존재를 집에 귀중품이 있다는 표시로 해석 가능함, 결과적으로 잠재적 이익이 계산에서 증가된 위험을 능가할 수 있음</li> <li>• 경보를 인지하는 경험이 많은 범죄자는 경험이 적은 범죄자보다 억제력이 낮음</li> <li>• 또 다른 반론은 경보가 비용 효율적</li> <li>•</li> </ul>
Awareness-raising campaigns (인식 제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위험)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대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li> <li>• 인식 제고 캠페인의 영향이나 결과에 관한 평가 연구 없음</li> </ul>

<b>다른 범죄 예방 아이디어</b>	
<b>Free counseling and Discount agreemen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이 독일에서 대상 강화(Target hardening)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나 은행과 무료 상담 및 할인 계약(대출)을 제안</li> <li>• 취약계층(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이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li> </ul>
<b>BURGLAR-RESISTANCE INCORPORATED IN THE BUILDING DECRE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네덜란드는 더 많은 도난 방지 창문과 문을 요구하는 새로운 건축 규정 도입</li> </ul>
<b>POLICE QUALITY MARK (PQ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규정 외에도 네덜란드는 1995년에 네덜란드 경찰 품질 마크(PQM)를 도입</li> <li>• 건축 법규는 경첩과 잠금장치에만 초점, 의무적</li> <li>• PQM에는 조명, 시야, 창문, 문 및 채광창의 보안과 관련된 추가 요구 사항이 포함</li> <li>• PQM의 적용은 자발적이며 집주인이나 프로젝트 개발자의 의지</li> </ul>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독특한 사회 변화의 한 단면이라 생각된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범죄로부터 1인 가구를 보호하는 이슈는 계속하여 중요한 문제로 간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들 1인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 예방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다른 영미 국가들처럼 우리만의 과학적 증거 중심의 연구들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첫째, 현재 1인 가구 범죄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생각이 된다. 어떤 데이터가 가능한가에 따라 내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연구 형태 역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식적인 범죄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공무원들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시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장소 3개를 비교할 때 내적 타당성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3개의 장소에 대한 정책 시행 전 데이터와 정책 시행 후 데이터가 필요하다. 만약 실험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과학적 증거 중심의 연구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오는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연구와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1인 여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가 너무 좁거나 규모가 작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1인 여성 가구의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범죄 예방 노력은 대부분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만 집중하고 있다.<sup>27)</sup> 다른 국가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범죄 정책을 도입하고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범죄 예방 정책의 범위와 규모를 좀 더 크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의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내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분석과 더불어 1인 가구 범죄 예방 프로그램 또는 정책들의 메커니즘 평가, 맥락 평가, 비용평가, 실행평가 역시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앞서 서울에서 도입된 현관 보조키,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방범창 등이 어떤 메커니즘(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맥락(어떤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 범죄에 따른 비용보다 높은지 낮은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치들이 잘 장착되었는지(예를 들면 창문 열림 센서의 경우 사용자에게 줄 때 사용자가 과연 설치하는지, 방범창은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역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연구 환경을 생각하면 위의 이러한 주장들이 비현실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현실적인 접근으로는 다른 국가에서 과학적으로 범죄 예방 증거를 가지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이 유행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고 많은 국민 세금이 사용됐다. 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나 가로등과 같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벽화 또는 바닥 공사 같은 검증되지 않은 곳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1인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 역시 충분한 시간과 연구가 부족하다면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7) 앞서 서울과 대구 사업에 근거함.

## 참 고 문 헌

### 1. 국내 문헌

-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8(2):287-320.
- 강지현, 2019,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가구유형별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4):23-54.
- 김원중, 2020, “1인 가구와 범죄”, 법경제학 연구, 17(1):137-160.
- 김지선·주익현, 2015, “가구범죄피해의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3회 전국범죄 피해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 박성훈, 2011, “한국의 도시지역 범죄 피해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선한이·조윤희, 2020, “노인 1인 가구의 취약성과 범죄: 차별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4(3):315-339
- 장진희, 2018,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연구, 19(4):87-110.
- 조제성·이상훈, 2021, “1인 가구 여성의 거주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치안 행정논집, 18(3):153-171.
- 최기상, 2021, “주거침입 범죄 증가하는데 검거율 감소, 여성 1인 가구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보도자료.
- 최형근·박신의·한정은·민동기·김나경·황의갑, 2021,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 두려움 변화추세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3):163-189.
- 최형근·박신의·민동기·장현석, 2022, “1인 가구 여부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차이 분석”, 한국범죄학, 16(2):87-108.
- 통계청, 2021,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 2. 국외 문헌

- Armitage, R., L. Monchuk, M. Rogerson, 2011, “it looks good, but what is it like to live there? exploring the impact of innovative housing design on crim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Policy and Research, 17(1):29-54.

- Bayley, D, 1994, *Police for the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Bennett, T., K. Holloway, and D. P. Farrington, 2008, “The effectiveness of neighborhood watch”, *Campbell Systematic Review*, 4(1):1-46.
- Campbell, D. T. and J. C. Stanley, 1963,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 Clarke, R, 1997,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Harrow and Heston Publishers, Guilderland, New York.
- Clarke, R, 2005, “Closing Streets and Alleys to reduce crime: should you go down this road?(Problem oriented policing response guide No. 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Cohen, L. 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 College of Policing, 2002, *Neighbourhood crime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nterventions: Evidence Briefing*, College of Policing.
- Cullen, F. T, 2013, *Rehabilitation: Beyond the Nothing Works. Crime and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Farrington, D. P., D L. Mackenzie, L. W. Sherman, and B. C. Walsh, 2002,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Routledge, London.
- France, A. and R. Homel, 2007, *Pathways and Crime Prevention*, Willan. London.
- Grove, L. (2011), “Preventing Repeat domestic burglary: a meta evaluation of studies from Australia,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Victim and Offenders*, 6(4):370-385.
- Kelling, G. L., T. Pate, D. Diekman and C. E. Brown, 1974. “The Kansas City Prevention Patrol Experiment : Summary Report”, Washington DC : Police Foundation.
- Laycock, G, 1985, “Property marking: a deterrent to domestic burglary?” Home office crime prevention unit paper 3. London, Home Office.
- Sherman, L. W, D. C. Gottfredson, D. L, Mackenzie, J. Eck, P. Reuter, and Shawn, D. Bushway, 1998,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Washing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Sidebottom, A, L. Tompson, A. Thornton, K. Bullock, N. Tilley, K. Bowers, and S. D. Johnson, (2017), “Gating Alleys to reduce crime: a meta analysis and realist synthesis”, *Justice Quarterly*, 35(1):55-86.
- Spellman, W. and D. K. Brown, 1984, “Calling the police: Citizen reporting of serious crime”, Washing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Tonry, M. and D. P. Farrington, 1995, *Building a safe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Tseloni, A, G. Farrell, R. Thompson, and E. Evans, 2017, “Domestic Burglary drop and the security hypothesis, *Crime Science*, 6(3):1-16.
- Weisel, D. L, 2004, “Burglary of Single Family House(Problem oriented guidies for police problem specific guides series guide No. 18)”,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Welsh, B.C, and D. P. Farrington, 2007, *Preventing Crime: What works for children, offenders, victims and Place*, Springer, New York.
- Welsh, B.C, and D. P. Farrington, 2008, “Effect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on crime: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4(1):1-55.

### 3. 언론기사

- 예병정.(2021.5.23.), “서울시, 여성 1인 가구에 범죄예방 안심장치 지원”, 파이낸셜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43381>.
- 하근홍.(2021.09.29.), “대구중구 여성 1인가구 셰이프홈지원사원 여성안심 4종 세트 지원”, JobPost 뉴스: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18>

### 4. 보도자료

- 최기상 의원 보도자료. (2021.10.18.), “주거침입 범죄 증가하는데 검거율 감소, 여성 1인 가구 두려움에 떨고 있다”

## Comparison of burglary crime prevention policies for single-person (female) household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Ryu, Jun-Hyuk

### [Abstract]

Recently, Korea is experiencing a rapid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particular, like men, the number of single female households is also increasing very rapidly. According to the routine activity theory, single-person households are suitable targets for crime because their ability to defend against crime is reduced. Currently, in Korea, with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female) households, the number of appropriate crime targets among the three elements of crime continues to increase, and assuming that a motivated criminal always exists, the condition of absence of guardian (single female) If the situation without adequate protection for households is added, crime against single-person (female) households is likely to increase. For this reason, various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currently implementing crime prevention programs for single-person (female) households. However, proper evaluation of them has not been carried out. In contrast, in other Anglo-American countries, evaluations of various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programs for home invasion crimes have been conducted,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based on this scientific evidence.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introduce an effective single-person household crime prevention policy through scientific evaluation of various crime prevention programs in Korea.

**Key-Words:** Single-person households, women, routine activity theory, scientific evidence,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